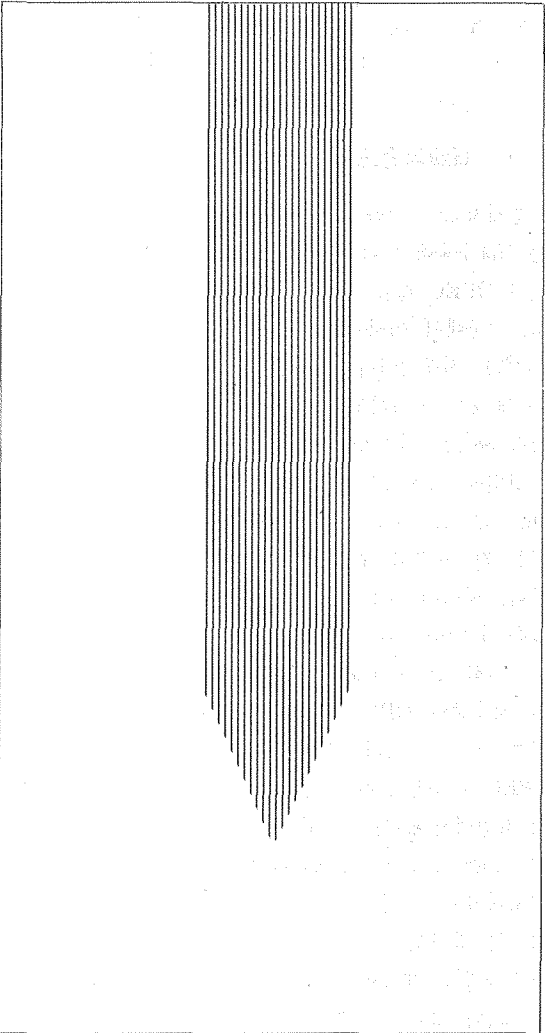


OPEC(석유수출국기구)는 정치체제 및 경제사정이 상이한 여러가지 특질을 지닌 산유국의 集合이기 때문에 회원국간의 利害가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각국이 自國이 놓인 정치적, 경제적 여건에 의거한 石油政策을 주장함으로써 OPEC内の 단결은 흐트러지기 마련이다. 특히 適正原油가격과 이를 달성

## OPEC의 정치·경제현황과 석유정책



하기 위한 산유량수준을 둘러싸고는 각국의 石油매장량, 재정상 필요한 石油收入, 정치체제, 세계경제에의 배려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견해차이로 인해, OPEC내에는 역사적으로 온건파, 강경파, 중간파로 일컬어지는 3개그룹이 존재해 왔다.

### 1. 경제적 요인에서 본 각국의 기본적 체질

OPEC 제국의 石油政策 방향을 결정하는 경제적 요인은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OPEC 자체가 原油생산량의 국별쿼타 결정시에 참고로 사용하고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1) 原油매장량 및 가채년수

OPEC의 가채년수는 72년으로, 非OPEC의 17년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나, OPEC회원국간의 가채년수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등 5개국은 확인매장량이 3,000억배럴을 넘고 가채년수도 60년 이상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가봉, 에콰도르의 3개국은 확인매장량이 적고 가채년수도 10수년으로 非OPEC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OPEC내의 매장량 및 가채년수의 격차는 OPEC 회원국간에 국익의 상이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대체로 매장량이 많고 가채년수도 긴 나라는 온건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강경파인 이란 및 리비아는 확인매장량이 많고 가채년수도 긴 나라인 반면에,

온건파인 카타르가 확인매장량이 적고 가채년수도 짧은 나라라는 점등, 이러한 여건과 각국의 석유정책이 반드시 부합된다고는 볼 수 없다.

## (2) 原油생산능력 및 가동율

OPEC의 原油생산능력 및 가동율은 1986년말에 각각 2,752.5萬 b/d, 66.8%였다.

原油생산능력은, 사우디아라비아가 880萬 b/d로 OPEC 전체의 거의 3분의 1이라는 압도적으로 높은 능력을 갖고 있다. 반면에 가봉, 에콰도르는 각각 20만 b/d, 30만 b/d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각국의 격차는 크다.

생산능력을 페르시아灣 6개국과 나머지 7개국으로 나눠보면, 전자가 1,872.5萬 b/d(1개국평균 312萬 b/d), 후자가 880만 b/d(同 67.6萬 b/d)로 양자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동율은 前者 62.8%, 後者 75.2%로 페르시아灣 제국이 여타제국에 비해 여력이 남아 있다. 가장 여력이 남아 있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동율이 57.3%이고, 반대로 가장 여력이 부족한 나라는 에콰도르로 가동율이 92.3%인데, 대체로 고생산능력, 저가동율 상황에 있는 나라가 온건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산능력, 가동율과 石油政策에서의 온건, 강경자세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점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 (3) 내수

OPEC의 국내제품 소비량은 1986년에 308.4만 b/d이다. 高消費國은 이란(72萬 b/d), 사우디아라비아(51만 b/d), 인도네시아(47만 b/d), 베네수엘라(38만 b/d)로서 이들 4개국이 OPEC 전체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低消費國은 가봉(1만 b/d), 카타르(2만 b/d), 에콰도르(7만 b/d), UAE(8만 b/d) 등이다. 內需量의 高低와 石油政策間에는 명확한 인과관계는 볼 수 없다.

## (4) 인구

OPEC 13개국의 1986년말 총인구는 4억 1,438만명이고 그중 인도네시아(1억 6,694만명), 나이지리아(1억 1,608만명)의 2개국이 전체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카타르(33만명), 가봉(117만명), 아랍에미

리트(139만명), 쿠웨이트(179만명)의 4개국이 합쳐야 전체의 1.1%에 불과하는 등 격차가 매우 크다.

## (5) 1인당 GNP

OPEC 13개국의 평균 1인당 GNP는 1986년에 5,584달러로 높은 수준에 있다. 그러나 1인당 GNP 6,000달러 이상의 4개국(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을 제외한 9개국에서만 보면 2,580달러에 불과하다. 게다가 1,000달러 내외의 국가(나이지리아 304달러, 인도네시아 467달러, 에콰도르 1,074달러)가 있는가 하면, 1만달러 내외의 국가(카타르 1만 7,156달러, 아랍에미리트 1만5,972달러, 쿠웨이트 9,824달러)도 있어서 OPEC 諸國間의 1인당 GNP로 본 경제격차는 크다. 1인당 GNP가 높은 상위 4개국이 온건파라고 할 수 있으나, GNP가 낮은 나라가 반드시 강경파라고는 볼 수 없다.

## (6) 石油의존도

통계자료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石油수출액의 비율에서 石油의존도를 알아본다. 1986년의 OPEC 평균을 보면, 同比率은 77%에 이르고 있다. 그중에서 이라크(96%), 리비아(93%), 나이지리아(93%), 사우디아라비아(92%), 카타르(91%)등 5개국은 90%를 초과하고 있으며, 이란 및 아랍에미리트는 각각 88%로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에 인도네시아(36%), 에콰도르(45%), 알제리(61%)는 그 비율이 낮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및 알제리는 가스수출을 포함시키면 각각 약 70%, 95%에 이른다. 따라서 炭化水素資源의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겠다.

경제적 요인에서 보면, 原油매장량이 적고 1인당 GNP가 저수준인 OPEC제국들의 石油政策은 대개 강경체질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아랍이외의 OPEC 제국에 있어서 강하다. 각국의 石油政策을 경제적 요인에서 판단하면, OPEC內 최강경파는 인구가 많고 石油資源이 부족해데다가 다액의 외채를 안고 있는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의 2개국이 된다. 그리고 최온건파는 풍부한 石油매장량을 보유하면서 인구가 적고 외채가 없는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의 2개국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자는 타당하다 할 수 있으나, 전

자는 적절하지 않다. 아마 이것은 각국이 경제적 요인을 기본적으로 안고 있으면서도 정치적 여건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에 의해 石油政策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예측된다. 다음엔 이러한 정치적 요인을 주요국에 대해 알아 본다.

## 2. 정치적 요인에서 본 각국의 기본체질

지리적으로 OPEC 13개국중 8개국이 中東에 集中되고 있으며 그중 6개국이 페르시아灣 연안에 위치하고 있다. 中東이외에서는 西아프리카 2개국, 南美 2개국, 아시아 1개국으로 분산되어 있다.

또한 문화적, 종교적으로는 아랍이 7개국, 이슬람敎國이 10개국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보면, 이슬람을 종교로 하고 中東에 위치하는 아랍제국이 OPEC內에서 최대세력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12개국이 西方제국을 舊宗主國으로 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도 美國과의 유대가 강하다. 독립하기까지의 舊宗主國과의 관계가 각국의 외교정책 및 石油政策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치체제상으로는 王制나 首長制 국가는 4개국에 불과하며, 非王制國家 중에서 이란, 이라크, 리비아 등 3개국은 혁명에 의해 王制에서 공화제로 바뀌었다.

### (1)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체제는 神政적인 왕제로서 이슬람의 敎義에 기초한 전통적인 부족사회의 통치체도를 근대국가적 통치조직으로 보완한 체제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시는, 이 전통적사회를 기반으로 한 있기 王制수호에 때문에 국가정책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다.

또한 국토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는데다가 군사력이 빈약해서 안전보장면은 취약하다. 게다가 近隣諸國에는, 東쪽에 회교혁명을 표방하는 이란, 西쪽에는 紅海를 사이에 두고 소련과 우호조약을 맺은 이디오피아, 南쪽에는 역시 소련과 가까운 南예멘, 北쪽에는 이스라엘과 이라크등 위협적인 각국이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여건가운데 王制를 보호하고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서방선진제국, 특히 美國에 의존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OPEC內에서 온건파로서 행동하고 있는 이유의 하나는 산유대국이면서도 정치, 군사면에서 취약성을 지니고 있어서 그 대응을 서방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데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 (2) 쿠웨이트

국가체제는 입헌군주제이고 군주(首長)에게 사법, 입법, 행정에 대한 많은 권한이 집중되고 있다.

쿠웨이트는 國內石油開發의 여지가 적다는 것이 요인이 되어 1975年 3月, 쿠웨이트石油公社(KOC)의 100% 경영참여를 결정하였다. 또한 제1차 석유위기이후 내셔널리즘을 강하게 요구하는 國회의 움직임도 있어서 생산제한정책을 강화해왔다. 이처럼 1970년대부터 1980년초에 걸친 石油政策은 國內의 정치정세를 반영한 것으로, 반드시 사우디아라비아등 온건파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는 중간파의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이란, 이라크전쟁 발발후 특히 이란의 군사적 감육의 현재화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적 요인의 발생등으로 인해,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보조를 맞춘 온건한 石油政策으로 전환하고 있다.

〈表 - 1〉 OPEC 諸國의 지리적·문화적·종교적 분류

中 東 (8)			非 中 東 (5)		
非페르시아灣 諸國 (2)	페르시아灣 諸國 (6)	國	西아프리카 (2)	南아프리카 (2)	아 시 아 (1)
아 랍 (7)			非 아 랍 (6)		
이 슬 랍 (10)			非 이 슬 랍 (3)		
王 制 (首長制) (4)			非 王 制 (9)		

### (3) 아랍에미리트 및 카타르

국가체제는 양국이 모두 입헌군주제이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유사한 전통적 정치제도를 근대국가적 통치기구가 보완하는 체제이다. 게다가 양국 모두가 국토면적, 인구에서 본 국가규모가 매우 작아서 안전보장면에서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욱 취약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양국은 정치 및 군사면에서 西方側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OPEC內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의 石油政策을 기본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 (4) 이라크

이라크가 OPEC內에서 강경파로부터 중간파로 전환한 것은 1978년 12월의 제52차 아부다비 총회에서였는데, 그 배경으로는 국내에 있어서의 권력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원래 이라크는 바스주의(아랍민족주의적 사회주의) 아래, 石油産業의 국유화 및 자원주권의 주장등 강경자세를 견지해 왔다. 그러나 바스黨內에서 교민파인 샷담·후세인(現大統領)이 점차 대두하게 되자, 외교면에서의 非同盟主義, 경제면에서의 對西方문화개방등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이것이 OPEC內에서의 石油政策변경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현재엔 명확히 온건파라고 못박을 수는 없으나, 對이란戰에서 정치·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아온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의 石油政策 지지로 기울어져가고 있다.

### (5)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는 제2차대전때부터 민족주의의 高揚, 공산주의의 침투를 볼 수 있었다. 수카르노당시 대통령은 1959년, 軍과 공산당을 기반으로 하는 체제를 확립하여 민족주의, 공산주의 및 종교의 일체화에 힘써, 외교면에서도 중간에의 접근, 비동맹 외교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공산당은 1965년 9월에 철저히 탄압되고 1968년에는 수하르토 새 대통령이 탄생하였다. 수하르토 현정권은 표면적으로는 비동맹외교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對美 및 對日관계중시, ASEAN의 반공조직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수하르토 체제가 되면서부터의 정치적 脫 공

산주의 움직임 및 親美的 외교가 石油政策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高油價를 희망하면서 OPEC內 중간파로서 조정자, 역할을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 (6)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에서도 2차대전중에 민족주의 움직임이 강했으나, 지도적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침체화되지는 못했다. 1968년 이후 현재까지 民主行動黨, 크리스스트敎社黨등 온건정당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외교면에서는 對美자립, 對第3世界협조를 표명하고 있으나, 그 방침은 상대적으로 온건해서 美國, 서방제국과의 우호관계유지에도 배려를 하고 있다. 이러한 자세가 베네수엘라로 하여금 OPEC內 중간파로서 일정한 조정역을 맡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 (7)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는 英國으로부터 독립한 1960년 이후도 부족간의 대립으로 쿠데타가 되풀이 되어, 대부분 군부가 정권을 장악해 왔으며, 바반기다 현대통령도 軍出身이다.

나이지리아 외교의 특징은, 비동맹노선을 취하면서도 현재에도 영연방에 머무는 등 西方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 있다. OPEC內에서도 온건파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강경파까지도 아니라는 점에서 중간파라 할 수 있겠다.

현재의 루크만 石油相은 성실하고 英語 및 아랍語가 능통한데다가 이슬람교도라는 것 때문에 OPEC각국의 신뢰를 모아, 중간파를 대표하는 名議長으로서 난국에 처한 OPEC를 이끌고 있다.

### (8) 이란

팔레비 王朝시대의 이란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中東에 있어서 美國의 가장 중요한 국가였다. 美國은 對蘇 전략상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石油자원도 풍부한 이란에 高性能 병기를 다량으로 매각하는 등 관계심화에 힘썼던 것이다.

그래서 美國에 의존해온 이란은 당시부터 OPEC內에서 강경파로서 油價인하의 주역을 맡아 왔다. 이는 石油收入이 팔레비 王朝를 뒷받침하는 경제적 근간이었기

때문이다. 즉, 광범위한 지지기반이 약한 王制수호를 위해서는 강경적 石油政策이 필요했던 것이다.

혁명후에도 이란은 石油政策에 있어서는 강경자세를 견지하고 있는데 혁명직후의 강경자세는 석유의존형 경제로부터의 탈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단위당 石油價格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고 현재도 기본적 인식엔 변화가 없다. 또한 이·이戰이 발발하자 對이라크戰에 소요되는 군사비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石油收入 극대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현실적 요청이 강경자세의 최대이유가 되어있다.

어쨌든 OPEC내에서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정치 정세는 혁명에 의해 변했으나, 石油政策에 있어서는 강경자세는 현재도 변하지 않고 있다.

(9) 리비아

리비아의 국가원수 카다피는 1977년 「제3의 세계이론」을 제창하고 ①이슬람주의의 준수 ②아랍민족주의

중시를 기반으로 하는 리비아형 민주제를 내세웠다.

石油政策에도 이 「第3의 세계이론」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민족주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東西不偏을 기본으로 하는 리비아의 정책이, 西方제국에 대한 배려를 보이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온건파제국의 石油政策과 때때로 충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10) 알제리

알제리가 OPEC내에서 강경파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는 장기에 걸친 反植民地 투쟁의 과정에서 배양된 정치적 신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프랑스와의 독립투쟁중에 제3세계와의 연대, 식민지주 의에의 반발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주의적 국가건설 노선의 증시이다. 이는 정치면에서 투쟁하는 비동맹주의, 경제면에서의 자원주권 확립에 의한 중속상황의 탈피하는 정책을 채택하게 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OPEC 內에서의 강경자세와 이어져 있다.

〈表-2〉 OPEC 諸國의 政治體制

	OPEC 가입년도	독립년도	구종주국	現정치체제	주요政黨	비고
總健派						
사우디아라비아	1960 (創設멤버)	1932		王制	없음	신정적 체제
아랍에미리트연합	1967 (1)	1971	(英國)	立憲君主制	없음	외교, 경제등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따름
카타르	1961	1971	(英國)	立憲君主制	없음	"
쿠웨이트	1960 (創設멤버)	1961	(英國)	立憲君主制	部族代表, 餘他	팔레스티나인의 영향이 큼 이란·이라크 戰爭에서는 사우디를 추종
中間派						
이라크	1960 (創設멤버)	1932	英國	共和制	바스黨	아랍·바스社會主義를 지향
베네수엘라	1960 (創設멤버)	1830	스페인	共和制	AD, COPEI	1968년 이후 2大隱健政黨政治
인도네시아	1962	1949	荷蘭	共和制	PPP, POI	舊非同盟추진노선에서 右傾化
나이지리아	1971	1960	英國	共和制	UPN, UPN	쿠데타를 되풀이하여 군사정권 수립
에콰도르	1973	1831	스페인	共和制	CFP, ID <sup>c</sup>	社民路線이 주류
가봉	1975	1960	프랑스	共和制	PDC	
強硬派						
이란	1960 (創設멤버)		(英國) (美國)	共和制	이란, 이슬람共和黨	이슬람原理主義, 非同盟외교, 政情不安
알제리	1969	1962	프랑스	人民共和制	民族解放戰線 (FLN)	이슬람社會主義, 非同盟외교
리비아	1962	1951	이탈리아	자마히리이	없음	人民直接民主制를 지향

1979년 탄생한 샤드리정권은 경제면에서 서방접근을 강화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점차 石油政策에도 반영되어 강경색은 서서히 없어지고 있다.

이상 개관한 바와 같이, 각국의 내정·외교 등 정치적 요인은 石油政策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 검토해온 경제적·정치적 요인에서 본 각국의 石油政策에 대한 기본적 체질 및 이러한 요인에서 판단한 경우, 각국이 채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石油政策을 종합한 것이 <表-3>이다. 이 표에 의해 판단하면, 아라비아반도의 王制, 首長制 4개국은 경제, 정치양요인에서 보아 기본적으로 온건체질을 지니고 있다.

<表-3> 경제적·정치적 요인으로 추론한 OPEC 諸國의 石油政策

	경 제 적 요인 기 본 적 체 질	정 치 적 요인 기 본 적 체 질	兩要因으로 추론되는 石油政策의 방 향 성
사우디아라비아	○	○	○
쿠웨이트	○	○	○
아랍에미리트	○	○	○
카타르	△	○	○
이라크	△	△	△
인도네시아	×	○	△
나이지리아	×	○	△
베네수엘라	×	○	△
에콰도르	×	○	△
가봉	△	○	△
알제리	×	×	×
리비아	△	×	×
이란	△	×	×

註) 1) ○表: 穩健的, △表: 中間的, ×表: 強硬的

한편, 경제적 요인으로는 최강경자세를 택할 것으로 보인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2개국은 서방제국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배려해야할 정치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중간적이 된다. 반대로 이란 및 리비아는 경제적으로는 중간색이 짙었으나, 非西方政治 경향이 강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강경적 정책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 3. 온건파, 강경파, 중간파의 현황 및 향후전망

온건파, 강경파, 중간파라고 해도 엄밀한 정의나 분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일단 각파를 다음과 같이 나눠보기로 한다. 즉, 온건파란 原油價格수준을, 他에너지가격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경제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 억제해야 한다는 견해에 입각한 石油政策을 주장하는 그룹이다. 다시 말하면 온건파에 있어서는, 石油資源을 최후의 한방울까지 유효 이용하여, 石油收入의 장기극대화를 도모하는 일이 우선적정책 목표로 되어 있다.

한편 강경파는 石油收入의 단기적 극대화를 최종요정책목표로 하여, 구매자측이 받아들이는 최고수준가격에 의한 판매를 기본으로 하는 石油政策을 주장하는 그룹이다. 따라서 강경파는, 시황원화시에는 감산에의해 石油공급을 팽박화시키더라도 石油收入극대화를 가져오는 高價格수준을 추구해야 한다는 강경자세를 취하고 있다.

중간파는 이들 兩그룹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국가들로, 때때로 양파간의 조정역을 맡아하지만, OPEC가 놓인 여건에 따라 어느쪽이나 기울어지는 기회주의적 그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OPEC 13개국은 1987년말 현재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즉, 온건파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등 4개국으로, 모두 아라비아반도에 위치하는 王制 또는 수장제국가이다. 강경파는 이란, 리비아, 알제리등 3개국인데, 강경파 3개국의 공통사항은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표면상 非西方的 정치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간파는 상기 7개국을 제외한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인도네시아, 이라크, 에콰도르, 가봉등 6개국이다. 그런데 이라크는 對이란戰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하는 온건파 4개국으로부터 정치 및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다는 이유등으로 인해, 중간파에 속하면서도 이들 국가를 지지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 반면에 이라크는 전승수행상, 石油收入의 단기극대화로 이어지는 고가격수준이 바람직하다는 모순된 견해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사례가 1987년 10월부터 12월에 걸쳐 OPEC各國要因에 의해 밝혀진 1988년의 價

가격수준을 둘러싼 일련의 발언이다.

논점은 배럴당 18달러 價格을 달러下落 및 인플레이션 高進의 補塡을 이유로 상향 수정할 것인가, 또는 石油 수급, 세계경제의 향후 축소의 불안을 고려하여 유지·지속할 것인가였다. 전자를 강력히 주장한 것이 이란이고, 후자를 추진한 것이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였다.

처음엔 중간파인 인도네시아 및 나이지리아는 자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약간의 인상을 희망하여 이란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後 1988년의 國際石油市況이 여전히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확실해짐으로써 결국 이들 2개국도 가격유지파로 전환하였다. 또한 원래 강경파인 리비아 및 알제리도 1987년 12월 총회에서 가격인상 주장을 일단 전개했으나, 이를 고집하지 않고 油價유지에 동의했던 것이다.

이처럼, 1987년 총회에서는 이란만이 합의직전까지 강경자세를 견지하는 결과로 끝났다. 그러나 이는 현재 國際石油情勢가 점차 해소되어가고 있다고는 해도 여전히 기본적으로는 공급과잉상태에 있기 때문에 각국이 타협한 결과에 불과하다. 1982년 이후의 石油市況

에 의해 대부분의 OPEC제국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감안하면, 이란뿐만 아니라 리비아, 알제리 등 강경파 및 많은 외채를 안고 있는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인도네시아 등 여러나라가 價格引上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주축으로 하는 온건파제국과의, 적정가격수준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소요생산량에 대한 견해차이는 오히려 이제부터 증대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온건파제국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한도를 넘는 高價格은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온건파제국은 안전보장을 의존하는 西方諸國, 특히 美國에 대한 배려, 그리고 石油 소비의 지속적증가에 불가결한 石油價格의 對他에너지가격 우위성 확보 및 세계경제의 安定的 成長등을 配慮하면서 石油政策을 결정하고 있다.

세계石油의 페르시아灣제국 의존도가 1990년 중반에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 아랍穩健派 4개국과 餘他諸國과의 OPEC內에서 石油政策을 둘러싼 대립이 향후 더욱 격화하는 사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 <주간석유뉴스>

## □ 石油의 이모저모 □

### 原油의 종류

원유는 생산지와 생산되는 油層에 따라 그 성상이 다르며, 물리적 성질에 따라 분류할 경우, API 비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輕質원유 : API 34도 이상

中質원유 : API 30도 이상

重質원유 : API 30도 이하

또 화학적 성질에 따라 분류할 경우, 원유의 주성분인 탄화수소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파라핀계 원유

제1鍵溜分의 비중이 40도 보메(Baume)보다 가벼운 원유를 말한다. 이 원유는 성분 중에 파라핀계 탄화수소를 많이 함유하여 휘발유분의 옥탄價는 낮으나 경유

분의 세탄價는 높다. 일반적으로 아스팔트분이 적고, 파라핀왁스분이 많다.

• 나프텐계 원유

제1鍵溜分의 비중이 33도 보메보다 무거운 원유를 말한다. 이 원유는 비교적 나프텐계 탄화수소를 다량 함유하고, 아스팔트분이 많기 때문에 아스팔트계 원유라고 부르기도 한다.

• 中間系 원유

파리핀계 원유와 나프텐계 원유의 중간 성상의 원유를 말한다. 세계 원유의 대부분은 이 계통에 속하며, 中東 원유의 대부분도 이 계통의 원유이다.